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감원 이야기

—
vol.131

2023 MAY + JUNE

펫시장의 전성시대

반려동물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전 영역에 걸쳐 반려동물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을 훑어본다.



CONTENTS

Special Theme

04

Survey

6조 원, 블루오션
펫코노미 시장을 잡아라

08

Review

반려동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펫코노미’ 시장 커지다

12

Inside

반려동물 800만 마리 시대
가입률 1%의 펫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

14

Interview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
정훈 삼육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교수

발행일 2023년 6월 21일(통권 제131호)

발행인 겸 편집인 이복현

발행처 금융감독원 공보실 홍보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기획·편집디자인 ㈜이팝 02-514-7567

인쇄 디자인온 화신 02-2275-7719

FSS Advice

18

FSS Focus

“○○○야, 나야~”
속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주의보

22

Zoom in FSS

○○페이, 수수료는 얼마일까?
간편결제 수수료가 첫 공시

24

금융·경제트렌드

줄이면서 쓰는
요즘 소비 방식의 중심 ‘효율’

28

Q&A 톡톡

우대금리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특판 예적금 제대로 알아두기

32

금융경제읽기

IRA 및 반도체지원법,
국내에 미치는 영향

36

체크! 금융 생활 정보

외화 송금 거래 등
신고는 필수!

FSS Live

38

토박이의 여행 안내서

신들의 섬이자
여행객들의 낙원, 발리

44

우리는 호적메이트

오늘 한 잔 하실까요?
모녀의 막걸리 원데이 클래스
정지현 금융사기대응단 전문역
& 어머니 김길선 여사

48

나를 가꾸는 시간

식물과 함께한
어버이날 선물 2탄
류호균 보험리스크제도실 조사역
& 어머니 이은하 여사

52

FSS 뉴스

54

뻔하지 않은 퀴즈

Part 1

Special Theme

04

Survey

6조 원, 블루오션
펫코노미 시장을 잡아라

08

Review

반려동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펫코노미’ 시장 커지다

12

Inside

반려동물 800만 마리 시대
가입률 1%의 펫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

14

Interview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
정훈 삼육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교수

Pet Market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

펫코노미(Petconomy)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식품부터 ICT가 결합된 생활용품, 헬스케어, 장례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지금부터 반려동물 시장의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6조 원, 블루오션 펫코노미 시장을 잡아라

펫코노미(Petconomy)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적인 반려동물 산업은 무서운 성장 추세에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가 2027년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펫코노미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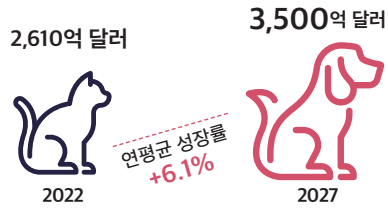
글. 편집실

#펫코노미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경제(Economy)를 결합한 용어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 또는 산업을 일컫는 신조어다. 저출산과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로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면서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여기고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반려동물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려동물과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펫코노미'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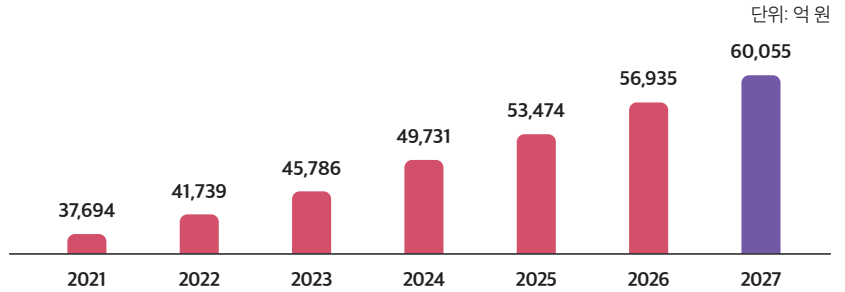


글로벌 시장의 크기와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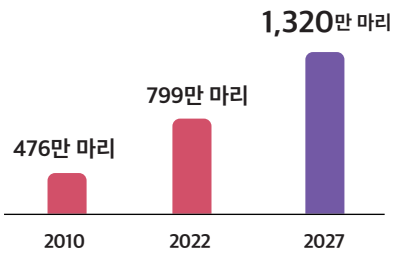
* 자료: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s)

연도별 반려동물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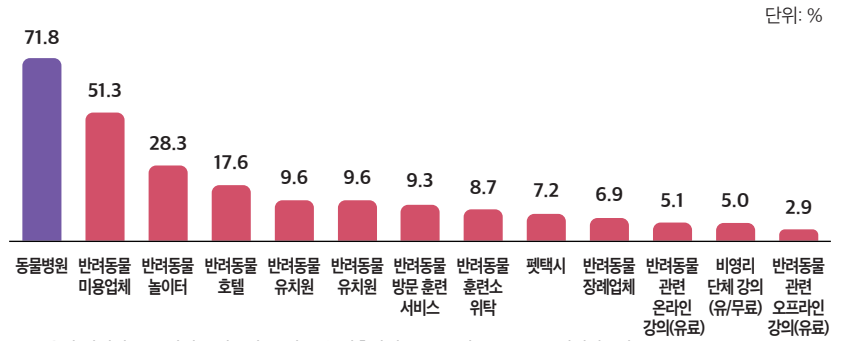
*2021~2027년은 추정치 * 자료: KREI

국내 반려동물 개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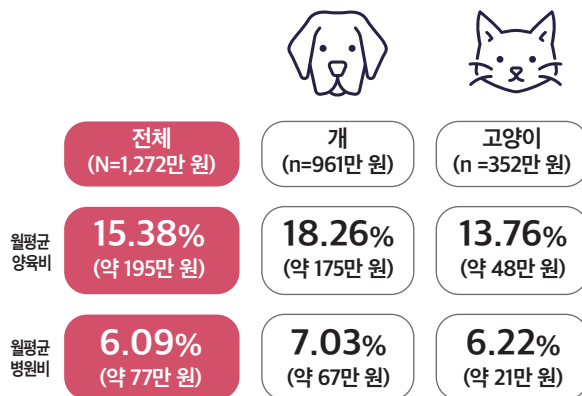
* 자료: 보험개발원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복수응답(반려견 또는 반려묘 양육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



* N=1마리당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오늘날의 펫 비즈니스와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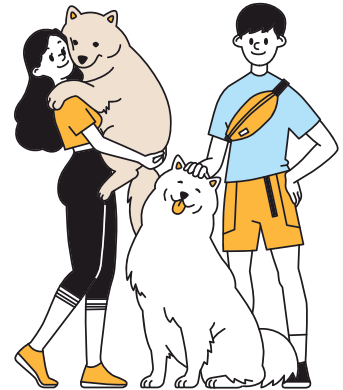


* 자료: 삼정PKMG

#펫 휴머니제이션

Pet Humanization

최근 글로벌 펫시장의 트렌드로, 반려동물이 사람과 같은 인격체로 대우받는 펫 휴머니제이션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사료와 밥그릇 등 몇 가지 용품만 구비하면 충분했지만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것을 넘어 자신처럼 아끼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고급 소비재도 기꺼이 구입한다.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는 사람의 의식주처럼 반려동물의 음식, 살아가는 환경, 건강, 입는 것까지 모두 세분화되며 반려동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펫팸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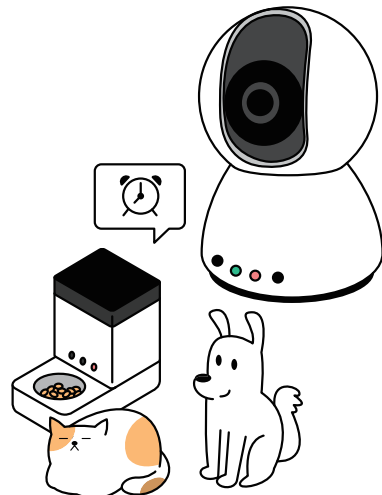
Petfam族

'펫팸족'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Family)가 합쳐진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1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단어에서도 인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반려'는 배우자를 뜻하는 단어로 배우자처럼 곁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동물이라는 의미다.

#펫테크

PetT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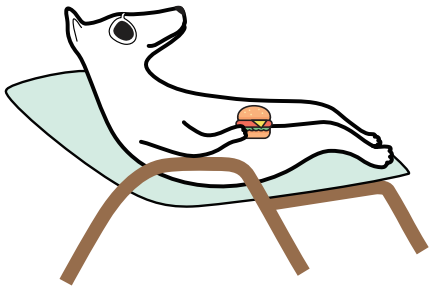
반려동물 산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뜻한다. 펫테크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술 기반 솔루션을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리테일, 하드웨어, 플랫폼 사업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펫테크 제품은 훈련용 도구, 건강관리와 추적 용품, 자동화 용품, 장난감,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이를 입증해주듯 2021년 글로벌인사이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펫테크 시장이 2025년 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펫 프렌들리

Pet Friendly

'펫 프렌들리'는 주로 반려동물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 상품을 가리키는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상품과 함께 호텔이나 카페, 식당 등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펫캥스, 펫슬랭(펫푸드 맛집)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호텔 등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패키지 제품을 내놓거나 식품업계에서는 반려동물을 겨냥한 다양한 간식을 선보이고 있다. 도그버거(독퍼·dogpper)부터 무알콜 맥주인 펫버어에 펫피자까지 출시하고 있다.



#펫러닝

Pet Learning

펫과 배움을 뜻하는 합성어로 반려견 교육을 말한다. 최근 반려견과 관련한 각종 사고가 증가하면서 펫티켓(반려동물 에티켓)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반려인들이 반려견 사회화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실제로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함께 사회화 교육을 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펫택시

Pet Taxi

반려동물을 데리고 미용하러 진료받으러 택시 탈 일은 많은데 켄넬(휴대용 반려동물집)이 보일 때마다 승차 거부를 하는 택시들이 많았다. 하지만 동물운송법이 개정되면서 반대로 반려동물의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생겨났다. 현재 100여 개의 전문 반려동물 운송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펫택시라고 부르는데, 차량 내부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패드와 전용 시트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OK! 배변패드 지참하여 깔끔히 수거

OK! 목줄 또는 하네스 착용

OK! 공공장소 이용 시 이동용 가방 사용

OK! 타인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견들의 입마개 착용은 필수



반려동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펫코노미’ 시장 커지다**

한국인 4명 가운데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우리 딸, 아들’ ‘막둥이’라고 칭하는 등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을 겨냥한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소비시장에 큰손으로 등장한 것이다.

글. 유선희 한겨레 산업팀 기자

유선희



<한겨레> 경제산업부에서
유통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다.
거시적인 담론보단 입고, 먹고,
쓰는, 우리 삶 속 미시적인 일들에
관심이 많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15년 1조9,0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올해는 4조5,786억 원에 이르고, 2027년에는 6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펫코노미 시장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사료 및 간식, 장난감, 동물병원 진료와 미용은 기본으로, 택시, 유치원, 호텔, 테마파크, 장례, IT 결합 상품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식품 업계는 물론 화장품업계, 치킨업계, 가전업계, 제약업계, 통신업계, 보험업계 등이 속속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PET FOOD

프리미엄 사료부터 영양케어까지

“내 아이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람이 늘면서 반려동물 사료도 ‘프리미엄’이 대세가 돼 가고 있다. 과거엔 미국·일본 등에서 수입한 사료가 인기였지만 이젠 국내 제품도 이에 못지않다. 반려견·반려묘를 위해 사람 몸에도 좋은 ‘홍삼’을 넣은 홍삼 사료가 출시되는가 하면 알레르기가 덜한 대체육·비건사료가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고품질 콩단백 중심으로 영양소를 배합하거나 대체육으로 각광을 받는 식용곤충을 재료로 한 반려동물 간식도 출시되고 있다. 실제로 펫푸드 시장 규모를 보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3년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가 약 1조1,799억 원으로 2020년 9,973억 원보다 18.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입증하듯 현재 전통 반려동물 식품회사에서만 펫푸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건강’을 연구했던 제약업계도 반려견 시장으로 눈을 돌려 유산균, 체력 보강제, 관절 영양제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숙지황, 홍삼 농축액, 아카시아 벌꿀 등 ‘사람도 먹기 힘든’ 성분이 골고루 들어 있다. 반려동물의 식습관에 따라 골라 먹일 수 있도록 껌, 양갱, 스틱포(츄르형), 필름형 등 형태로 다양하게 나온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반려인들이 이제 반려동물을 한 가족으로 여기며 먹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까지도 고려한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펫푸드에서 한발 더 나아가 펫케어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펫 휴머니제이션’(반려동물의 인간화)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원

9,973억



1조633억



1조1,176억



1조1,799억



* 자료: aT

PET CARE

IT 결합한 펫테크로 일상부터 건강까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 반려가구 현황과 노령견 양육실태>에 따르면 반려가구의 64.1%는 펫테크 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펫테크 기기는 '자동 급식기와 자동 급수기'(39.4%)이며, 그다음으로 '홈 CCTV와 카메라'(30.3%)와 '자동 장난감'(26.1%) 순이다. 현재 가전업체와 통신업체가 발 빠르게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하며 주로 IT 기술을 결합한 생활 케어 제품을 내놓고 있다. 가전업체에서는 물이나 사료를 자동으로 급여하는 '스마트 급수기'와 '스마트 급식기', 털을 쉽게 말릴 수 있는 '펫 드라이룸' 등과 같은 생활 기기 판매부터 렌탈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맞춤형 기기도 출시되고 있다. 반려견이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발을 세척하고 마사지를 해 주는 무선 제품, '펫 맞춤 청정 기능'을 갖춰 털·냄새 등을 제거해 주는 공기청정기, 반려동물의 일상을 모니터링하는 앱을 탑재한 돌봄 봇 등이 그것이다. 시장이 커질수록 고객의 요구도 다양해지는 만큼 반려동물 스마트 기기 역시 세분화한 기능과 디테일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이 앞다퉈 개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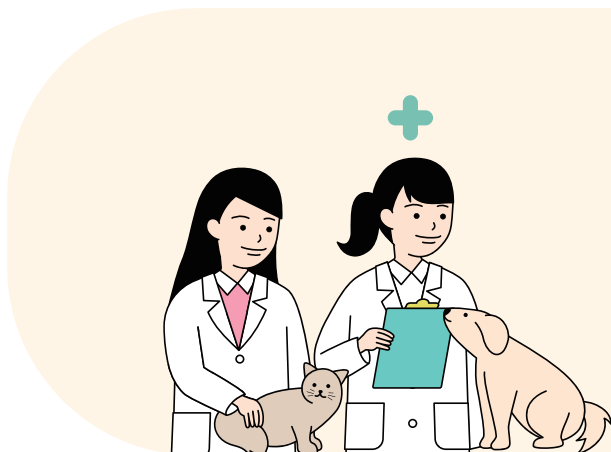
통신업체는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무선 펫토이 개발에 적극적이다.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 밖에서도 공을 내보내 노즈워크(코를 이용한 놀이)를 유도하는 장치가 대표적이다. 공이 굴러 나올 때 반려견이 두려워하는 초인종·천동소리 등이 깔려 생활소음 훈련도 같이해 준다. 반려견 MBTI라 할 수 있는 성향분석 검사인 '디비티아

이(DBTI)'를 제공하면서 상담소·훈련사와 견주를 연결하는 훈련 클래스를 운영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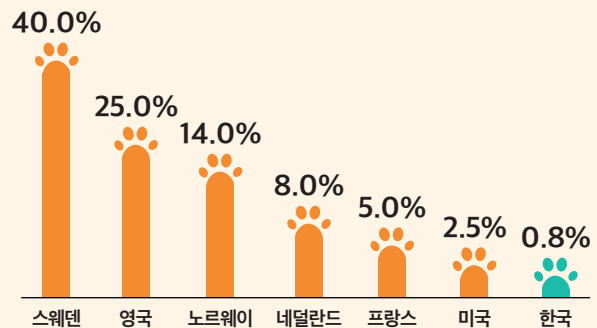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건강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는데, 병원에서 촬영한 반려견의 근골격(7종)과 흉부(10종) 등 엑스레이 사진을 클라우드에 올리면 인공지능(AI)이 약 30초 이내에 다친 부위의 정확한 위치와 비정상 소견 여부를 판별해 수의사에게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스도 등장했다.

또 반려동물 프로필을 등록한 뒤 건강질문지에 답변을 입력하면 10분 안에 분석 리포트와 함께 적당한 사료 등을 추천하는 분석시스템도 나왔다. 건강질문지는 정밀한 판단을 위해 견종·모종에 따라 구분되며, 나이·체중·체형 등 기본 정보부터 주거환경, 운동주기, 배변 및 배뇨 상태, 병원 진료 이력 등 반려동물의 생활 및 의료정보까지 포함한다.

펫테크의 성장은 이미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2020년 57억 달러 수준인 세계 펫테크 시장은 연평균 25%씩 성장해 2027년 272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펫테크의 발전은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며 1인 또는 2인 가구와 노인 가구의 반려동물 보급률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펫테크는 스타트업의 활기에도 일조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 반려가구 현황과 노령견 양육실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펫테크 관련 스타트업들이 누적 투자 금액이 약 2,570억에 달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펫테크의 성장이 반려동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반려동물보험 가입률



* 자료: 홍성원, 전국보 (2022) <반려동물보험 가입 현황과 보험금 지급 분석>

PET INSURANCE

펫 의료비 부담, 보험 활성화 필요

보험연구원이 2023년 2월에 내놓은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 리포트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내 반려동물 수는 799만 마리(개 545만 마리, 고양이 254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반려동물의 생명도 연장되고 있는 만큼 결국 반려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의 노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진료 항목이 모두 비급여로 동물병원마다 7~8배의 진료비 편차가 존재하는데, 1회 진료비가 평균 8만4,000원에 이른다”며 “그러나 반려동물 보험가입률이 약 0.8% 정도에 머물고 있어 스웨덴(40%)이나 영국(25%)에 견줘 현저히 낮다”고 짚었다. 2021년 기준 펫보험 시장 규모(원수보험료)는 219억9,000만 원에 그쳤다. 물론 2019년 92억 원에서 두 배 넘게 성장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치다. 보험의 활성화가 진척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반려동물 보험 운용의 기본이 되는 개체식별·연령판별에 활용할 ‘반려동물 등록률’이 50%도 채 되지 않는 탓이다. 보험상품 하나에 가입해 여러 동물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가격 인하, 보험금 지급 간소화 등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고 시장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수요 대비 시장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뜻도 된다. 그래서 최근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개체 식별을 하는 펫테크(펫+테크놀로지) 개발이 활발하다. 반려동물의 비문(코주름)이 사람의 지문처럼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기반해 스마트폰으로 코 사진만 찍으면 자동으로 반려동물의 신원이 확인되는 기술이 개발됐다. 또 반려동물의 얼굴 특징을 이용해 안면 인식을 하고, 이런 개체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관리해 보안도 강화한 신기술을 선보인 스타트업도 있다.

PET FUNE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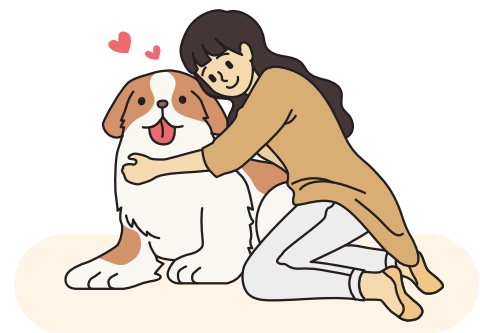
전문적인 장례 서비스 등장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의 일종으로 매장은 불법이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에 충격을 받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는 이런 걱정을 덜어줄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업체도 성업 중이다. 단순히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해 주는 ‘화장 시스

템’을 넘어 자칫 ‘펫 로스 증후군(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는 반려인의 마음까지 보듬는 세심한 서비스를 자랑한다.

반려동물의 종류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일부 업체는 개·고양이는 물론 새·거북이·달팽이·물고기 등 다양한 소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고기는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물기를 분무해 주고, 고슴도치·햄스터는 톱밥을, 새는 나뭇가지로 관을 장식해 주는 등 생전 모습과 가장 가깝게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는 식이다. 반려동물의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일종의 상조서비스도 출시됐다. 한 달에 7,900~1만1,900원씩 일정 기간 납부하면 염습·추모·화장과 이에 필요한 수의·관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화장장까지 편안하게 데려갈 수 있도록 기사와 차량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반려동물 장례 시장이 커지면서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도 새로운 직종으로 등장했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는 반려동물 장례 절차 상담, 장례 절차 진행, 유골 봉안 등 장례 전반을 수행하는 전문 직업인이다. 전문가 과정 클래스가 이미 개설돼 있고, 올해 1월 한국 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됐다.



‘반려동물의 요람부터 무덤까지 책임지는’ 펫코노미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생명이 아닌 장난감이라는 의미가 강한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란 용어가 대세로 자리 잡은 것에서 보듯 이들은 우리의 단짝이자, 가족이자, 친구가 된 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첨단 기술 개발과 발전은 반려동물을 더욱 인간사회의 중심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 분명하다.

반려동물 800만 마리 시대 가입률 1%의 펫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난 4월 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당국, 보험연구원 등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펫보험이란 사람의 실손의료보험처럼 동물이 다쳤을 때 치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날 논의된 펫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정리. 편집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명 시대다. 특히 최근 팬데믹 퍼피 (Pandemic Puppy)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2022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2018년 635만 마리에서 2022년 799만 마리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만큼 반려인들의 반려동물 양육비와 지출액도 늘고 있는데,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고민 역

시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동물병원 의료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정착함에 따라 반려동물이 아플 경우 해 줄 수 있는 치료는 모두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의료비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진료를 모두 해 주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동물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큼 검사 및 진료 시 더 많은 사람과 장비가 필요해 진료비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펫보험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심받고 있지만, 가입 건수는 2020년 약 3.5만 건, 2022년 약 7.2만 건으로 가입률은 1%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이 같은 현실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원장은 반려동물 진료항목 및 등록제와 관련한 인프라가 부족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와 동물병원의 제휴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 및 보험 가입, 청구서류 전송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펫보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몰티켓(김정은 대표)은 해외의 경우 펫보험전문회사가 주도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과 디지털 편의성을 제공하며 펫보험 시장이 성장 중인데, 우리나라가 2022년 기준 원수보험료 287.5억 원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에 비해 미국은 3조2,000억 원, 영국은 2조4,000억 원, 일본은 8,400억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반려동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에 강점을 가진 펫보험 전문 플레이어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삼성화재(강상욱 수석)는 진료항목 정비 및 반려동물 등록 확대, 청구 편의성 제고 등 인프라 구축에 기반해 보장 범위가 넓고 다양하면서 합리적인 보험료를 갖춘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펫보험이 수익학 관련 전문성 및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인 만큼 이러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메리츠화재(이은주 수석)는 정부에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제휴 관계를 구축해 보험금 청구 시스템 개선, 진료기록·서류 확인, 동

물병원에서 반려동물보험 판매 확대 등을 검토해 볼 것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김경선 연구위원)은 동물등록 허용의 실효성과 편의성 등을 분석하고 확대 방안을 검토하며,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기록 발급·전송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회사와 동물병원이 제휴 관계를 구축해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활성화, 진료항목 정비, 청구 전산화, 적정 수가범위 또는 보험 보장한도 협상, 보험판매, 보험통계 축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반려인은 보다 낮은 부담으로 의료·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동물병원은 의료시장 확대로 인한 수익창출, 보험판매수익, 시스템 개선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펫보험시장의 안정적 성장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까지 다빈도 진료항목 60개에 대한 진료 표준화를 추진하고 2024년까지 총 100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진료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등록을 제고 등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진료항목 관련 인프라 개선, 수익업계와 보험업계의 제휴 등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해외 펫보험전문회사는 어떨까?

미국 Trupanion

출생 직후부터 고령견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본인 부담액 및 보장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편리한 청구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영국 Bought By Many

사고, 질병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등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추가된 상품을 제공한다.

일본 Anicom

동물병원에 전자차트(EMR) 시스템 지원 등 제휴 관계를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

정훈 삼육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교수

반려동물 시장이 확대되면서 반려동물 산업 분야도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 정훈 삼육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교수는 다양한 반려동물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글. 강태성 사진. 한상훈



Q.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삼육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행동학을 연구하며, 저희 학과는 축산을 기반으로 시작해 야생동물 그리고 현재는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반려동물 쪽으로 분야를 넓힌 상태입니다.

Q. 교수님 말씀처럼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반려동물 시장이 4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커지면서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학과 펫푸드를 제외한다면 다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 특히 펫테크라는 말도 자주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분야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Q. 그렇게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 동물병원에서 AI를 이용하고, 펫푸드 관련 분야에서는 자동급식기 등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펫테크 시장의 구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펫테크 분야는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들은 자금력이 없는 탓에 펫푸드와 같은 마케팅이 필요한 산업에 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금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기술은 해당 스타트업 기술이 아닌 대기업의 기술이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이러한 구조를 탈피해야 진정으로 반려동물에 필요한 기술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Q. 그렇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반려동물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A. 개인적으로는 국가에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내놔야 하고, 대기업 진출 등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유경제시대에서

그러한 규제는 역차별일 수 있지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공존이 산업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Q. 그럼 여러 반려동물 산업 중에 가장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산업을 꼽는다면요?

A.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규모가 아직도 작은 편입니다. 그 말은 틈새시장이 굉장히 넓다는 뜻인데요, 그중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는 보험과 상조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보험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산업 분야보다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성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 상조의 경우 이제 우리는 반려동물을 가족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어느 누가 가족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싶을까요?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그들의 죽음에도 기꺼이 돈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Q. 보험의 경우 여러 걸림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A. 물론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개체 인증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기존에는 내장칩을 통해 반려동물을 인증했는데, 사실 칩을 반려인들이 선호하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목뒤에 칩을 넣었는데 꼬리 쪽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피부 트러블 문제 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또 MRI나 CT를 찍을 때는 칩을 빼야 하죠. 이 때문에 생체 인증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병원 진료비의 표준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과 견종마다 걸리는 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려인들의 인식이 달라져 반려동물의 병을 치료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만 해결된다면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요. 누가 생각했을까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MRI나 CT를 찍는 날이 올 거라고요. (웃음)



Q. 상조 분야에 가능성도 크다고 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앞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인간처럼 동물들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령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개체 수를 800만 마리로 가정했을 때 10년을 수명으로 계산한다면 매년 80만 마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코 작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더 좋은 것을 해 주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로 인해 상조 분야는 계속해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큼니다.

Q. 또 다른 틈새시장이 있다면 어느 걸 꼽을 수 있을까요?

A. 반려동물 호텔이나 유치원이 아닐까 싶어요. 여행을 갈 때 가족인데 자기 혼자만 즐기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쾌적한 공간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호텔 쪽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강아지의 경우 유치원에 가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반려인들이 일을 하다 보면 온전히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강아지 유치원에 보내는 걸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건설 쪽도 반려동물 시장에 눈을 돌려볼 만하다고 봐요. 왜냐면 강아지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강아지는 더운 걸 엄청 싫어해요. 그런 부분에서 반려동물이 있을 만한 공간을 고려한 집을 짓는다면 어떨까 합니다. 분명히 수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Q. 그렇다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펫푸드는 이미 시장이 성숙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입양 시장이 클수록 펫푸드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처음에 무얼 먹이느냐에 따라 반려인들이 계속해서 그 제품을 구매해서 먹이게 되거든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천쌀만 먹는 사람은 이천쌀만 계속해서 먹어요. 즉 고객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시장이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에요. 사료는 생산해야 하는 공장도 필요하고, 마케팅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한 번 시장에 진입하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지요.

Q. 끝으로 반려동물 시장이 좀 더 확장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A.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유기견, 유기묘가 많아요. 그만큼 아직도 반려인들의 의식이 선진국보다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환경적인 인프라도 좀 더 발전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는 배변봉투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반려인을 위해 주변에 배변봉투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결국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화의 성숙도나 인프라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성되어 있다면 산업은 저절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금감원이야기

Part 2

FSS Advice

18

FSS Focus

“OOO야, 나야~”
속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주의보

28

Q&A 톡톡

우대금리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특판 예적금 제대로 알아두기

22

Zoom in FSS

OO페이, 수수료는 얼마일까?
간편결제 수수료를 첫 공시

32

금융경제읽기

IRA 및 반도체지원법,
국내에 미치는 영향

24

금융·경제트렌트

줄이면서 쓰는
요즘 소비 방식의 중심 ‘효율’

36

체크! 금융 생활 정보

외화 송금 거래 등
신고는 필수!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없다.
상상력의 한계가 곧 부가가치의 한계인 것이다.

마틴 소렐 마틴 소렐, 세계최대 마케팅 서비스그룹 WPP의 CEO

“○○○야, 나야~”

속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주의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만여 명이 넘었다.
최근 여러 사례가 알려지면서 경각심도 커졌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노력을 살펴보자.

정리. 편집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 원으로 2021년 1,682억 원에 대비해 231억 원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기 활동 위축 등으로 2019년 이후 크게 감소한 것이지만 감소율은 2020년 65.0%, 2021년 28.5%, 2022년 13.7%로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다. 피해자 수도 12,816명으로 2021년 13,213명에 대비해 397명(3.0%) 감소했지만 피해금액은 1,451억 원 중 379억 원만 환급돼 환급률은 26.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오픈뱅킹·간편송금 등 금융거래의 간편성을 악용한 신종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오픈뱅킹(Open Banking)'이란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하고 개방해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면 하나의 계좌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좌로도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전체 피해 규모는 줄었지만 금융정보 취약층 피해 증가

보이스피싱은 가족이나 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이 1,140억 원으로 78.6%의 과반을, 대출빙자형이 311억 원으로 21.4%를 차지한다. 2020년 이후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가 급감하면서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2020년 15.9%에서 2022년 63.9%로 크게 늘어났다. 메신저피싱은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분증 사본이나 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후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특히 메신저나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연령대에 비해 피해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60대 이상(673억 원, 46.7%)과 50대(477억 원, 33.1%)가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30~50대의 피해금액과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사회활동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과 금융사기 예방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고령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피해를 보는데 피해금액은 1,111억 원으로 2021년 1,08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비중은 금융권 전체의 76.6%로 2021년도의 64.2%와 대비해 12.4% 증가했다.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 증권사(2021년 220억 원 → 2022년 34억 원)를 중심으로 2021년 602억 원에서 2022년 340억 원으로 피해금액이 급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단 위: 억 원, %, 명, %p)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증감(률)
피해금액*	4,440	6,720	2,353	1,682	1,451	(Δ13.7)
환급액	1,011	1,915	1,141	603	379	(Δ37.1)
환급률	22.8	28.5	48.5	35.9	26.1	Δ9.8
피해자수	48,765	50,372	18,265	13,213	12,816	(Δ3.0)

*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 기준 (이하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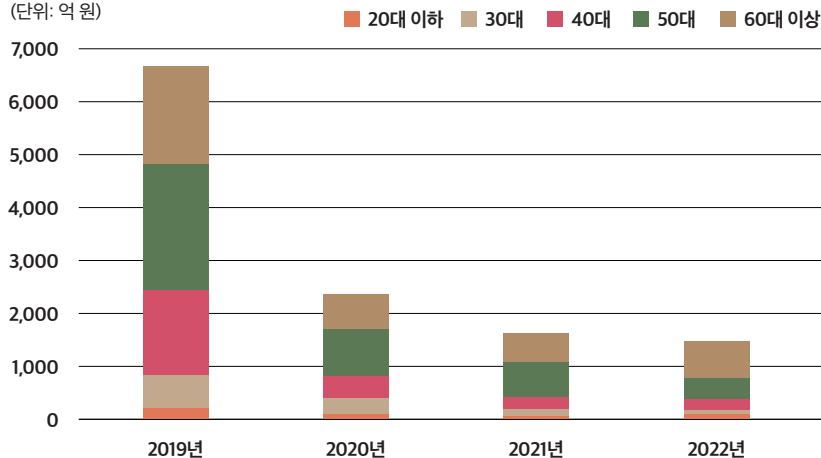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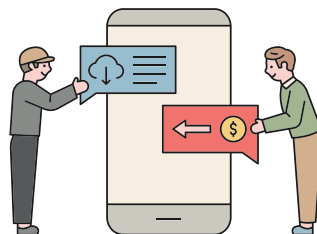
금융거래의 간편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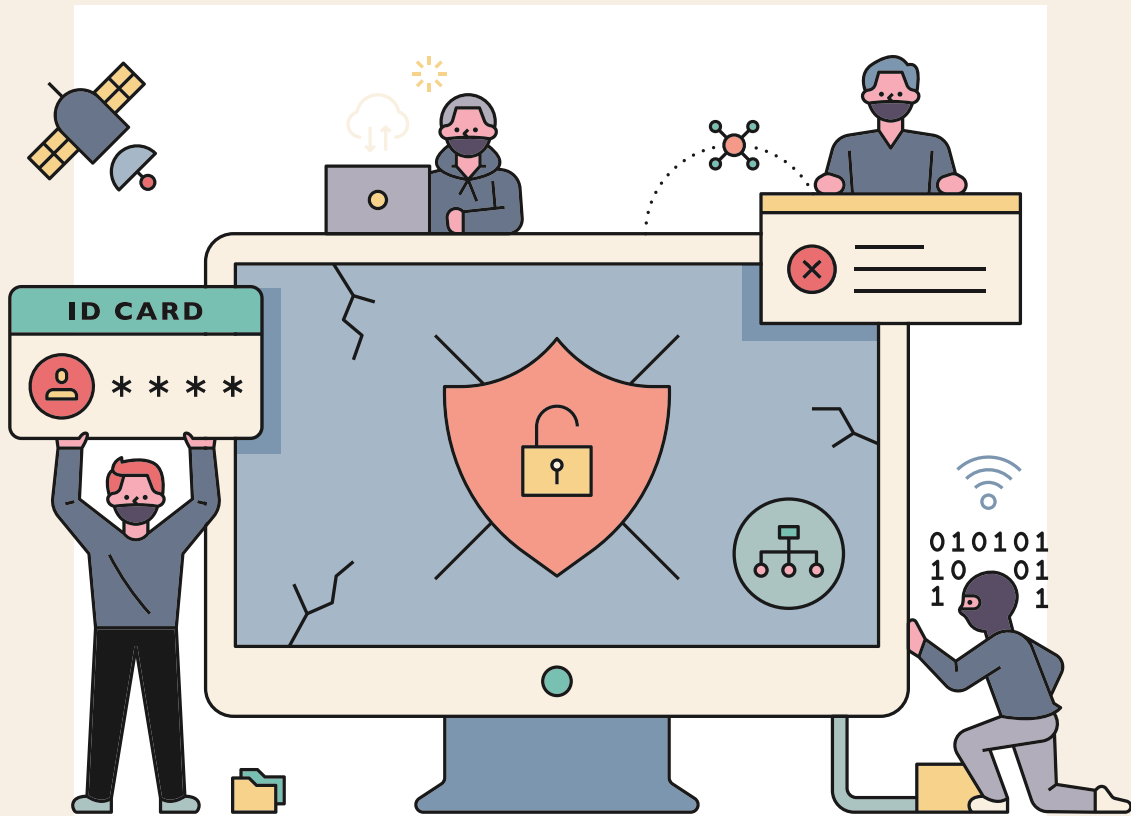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 원으로 2019년 6,720억 원에 비해 78.4%나 급감했지만 1인당 피해금액은 2019년 1억3,300만 원에서 2022년 1억1,300만 원으로 15.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사기범이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계좌에 접근이 가능해 1인당 피해 규모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금 환급률도 2020년 48.5%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크게 하락하며 2022년에는 26.1%에 그쳤다. 피해금이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거쳐 이전되는 과정에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 피해금 환급이 쉽지 않은 것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 금액 비중은 2021년 7.7%에서 2022년 20.9%로 증가했으며, 피해금액 역시 2021년 131억 원에서 2022년 304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A은행은 2022년 2분기에 글로벌 송금업체인 B사와 제휴해 수취인 계좌번호 없이도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지난해 4분기에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징후를 인지했음에도 거래제한 등의 조치가 늦어져 피해가 증가하기도 했다.

연령대별 피해금액

(단위: 억 원)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대응법

이처럼 점차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종수법을 인지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전파하고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감축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체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할 계획이다. 동 지표를 통해 물적·인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내부통제 시스템상 미비점을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메신저 링크를 통해 설치·작동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와 악성 앱 예방 기능의 활성화·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는 출처 미상의 앱 접근을 감지했을 때 금융권 앱을 작동하지 않아도 앱 설치를 차단하거나 앱 기능을 상시 제한하도록 사용자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페이, 수수료는 얼마일까? 간편결제 수수료를 첫 공시

우리에게 익숙한 네이버쇼핑, 카카오 선물하기 등을 운영하는 간편결제사업자 9곳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공개됐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에 대해 살펴보자.

정리. 편집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쇼핑 시 카드결제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다양한 간편결제를 이용한다. 간편결제는 카드 정보를 한번 입력해두면 결제할 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점은 간편결제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간편결제사업자들은 가맹점으로부터 결제수수료 외에도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나 각종 프로모션 명목 등으로 다양한 수수료를 받는데 이를 항목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계약도 통합해서 체결했던 것. 이 때문에 소상공인은 서비스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인지할 수 없는 상태이며, 협상력도 약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31일부터 결제수단별(선불·카드), 업체별 비교를 통해 간편결제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구분해 받도록 했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 및 선불수수료 등을 포함하고, 기타수수료는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것으로 쇼핑몰 구축을 위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수수료를 공시는 선불·카드 결제수수료율로 비교해 공시한다.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만 해당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SK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NHN페이코(페이코), SSG닷컴(SSG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등 9개 사가 대상이다. 한편 선불결제는 네이버페이머니·카카오페이머니 등 간편결제사 자체 포인트를 충전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미리 돈을 넣어 놔야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카드사의 체크카드 결제와 비슷하고, 카드결제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결해놓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빅테크 3사 수수료율 인하

이번 수수료율 공시 시행에 따라 공시대상 9개 업체의 선불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2.00(영세)~2.23(일반)%이며 카드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1.09(영세)~2.39(일반)%로 나타났다. 기업별 선불결제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우아한형제들이 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SSG닷컴 2.50%, 쿠팡페이 2.50%, G마켓 2.49%, 비바리퍼블리카 1.01~2.44%, NHN페이코 1.71~2.25%, 네이버파이낸셜 0.91~2.17%, 카카오페이 1.66~2.08%, 11번가 2% 순이었다. 카드결제 수수료율 역시 우아한형제들이 1.52~3%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11번가 1.30~2.90%, SSG닷컴 0.95~2.59%, G마켓 1.08~2.59%, 쿠팡페이 1.03~2.50%, NHN페이코 0.87~2.28%, 네이버파이낸셜 0.84~2.18%, 비바리퍼블리카 0.97~2.09%, 카카오페이 1.01~1.4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사의 수수료율이 전년과 대비해 낮아졌다는 것이다. 선불결제 평균 수수료율(영세·중소·일반 미구분)은 2021년 2.02%에서 1.73%로 0.29%포인트 줄었으며 간편결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카드결제 평균 수수료율 역시 1.95%에서 1.46%로 0.49%포인트 인하된 것이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간편결제사업자들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더불어 영세·중소 가맹점의 성장을 위한 온라인 사업 영위 토털 지원, 신생 가맹점을 위한 광고 등 프로모션 지원, 사업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결제수수료가 낮아진 가맹점이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게 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편결제 수수료율

간편결제사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	카드 결제수수료
우아한형제들	3%	1.52~3%
SSG닷컴	2.50%	0.95~2.59%
쿠팡페이	2.50%	1.03~2.50%
G마켓	2.49%	1.08~2.59%
비바리퍼블리카	1.01~2.44%	0.97~2.09%
NHN페이코	1.71~2.25%	0.87~2.28%
네이버파이낸셜	0.91~2.17%	0.84~2.18%
카카오페이	1.66~2.08%	1.01~1.40%
11번가	2%	1.30~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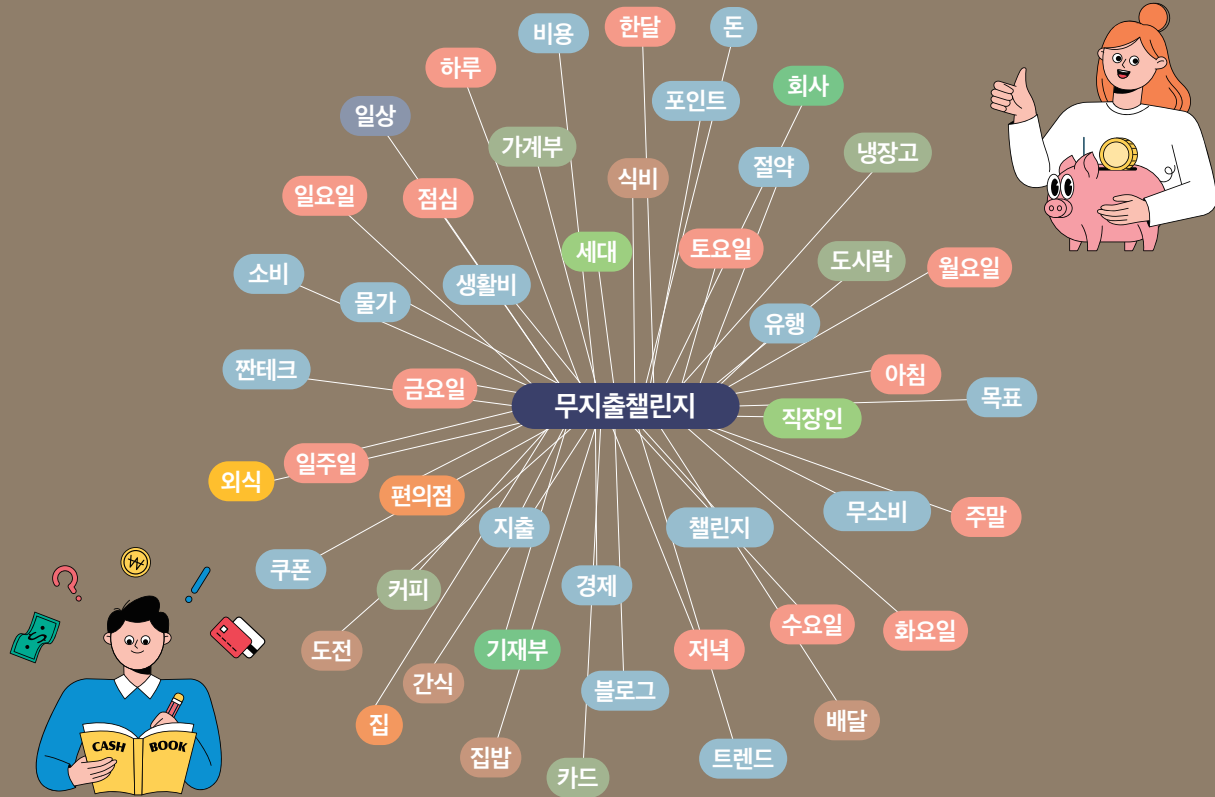
줄이면서 쓰는 요즘 소비 방식의 중심 ‘효율’

요즘 젊은 MZ세대의 소비 방식이 기성세대와는 사뭇 다르다.
경기가 둔화하면서 소비를 줄이는 패턴은 비슷한데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효율’을 통해 소비의 가치를 따진다는 점이 다르다. 즉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쓸 때는 가감 없이 쓰는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다.

글. 정석환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무지출챌린지'의 연관어



*블로그+커뮤니티+트위터, 2021.06.01~2023.05.31
*자료: 생활변화관측소

절약도, 재테크도 놀이 문화로 승화

유행과 트렌드는 다르다. '무지출챌린지'는 유행이었지만 트렌드는 아닌 듯하다. 유행과 트렌드의 차이는 간단히 하자면 '기간'을 들 수 있다. 보통 유행은 단기간에 데이터가 크게 상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지만 트렌드는 장기간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가 관찰된다는 점이다. 다시 '무지출챌린지'로 돌아와서, 무지출챌린지는 2021년도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주로 개인의 블로그 등에서 나타났는데 2022년 8월경, 기재부의 '무지출챌린지' 콘텐츠가 확산되며 소셜상에서 크게 언급되었다. 무려 전월 대비 약 14배 상승하였는데,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의 '무지출챌린지'가 대중적으로 더욱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는 언급량이 급격히 줄어들며 트렌드가 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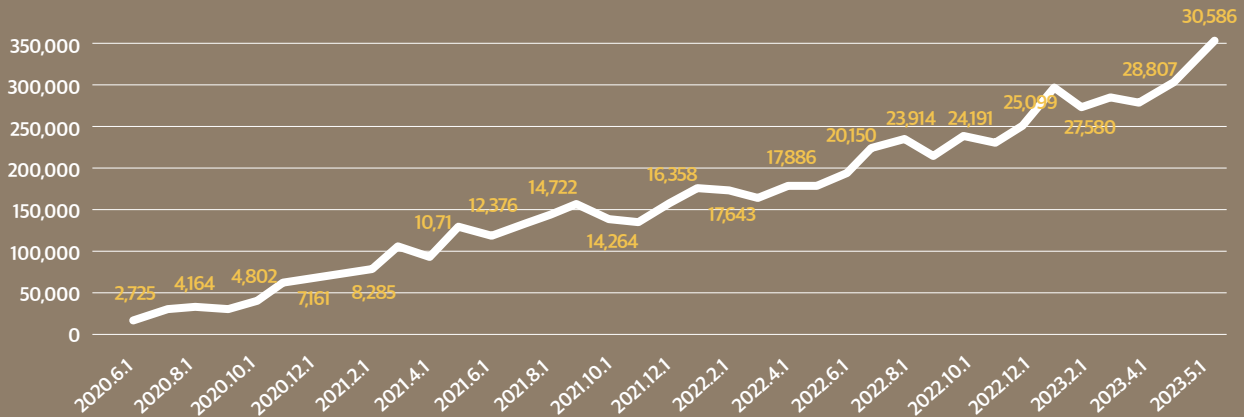
'무지출챌린지'의 핵심은 '비용이 안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수준

을 '절약'의 수준이 아닌, 정말 지출이 없는 0원으로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깃들여 있다는 점이다. '무지출챌린지'의 연관어를 살펴보면, '커피', '외식', '간식' 등 소비를 줄이는 영역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있고, 한편으로 '냉장고', '쿠폰', '포인트' 등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키워드나 되레 소비에 필요한 자원을 얻는 부분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이 있다.

그리고 직장인의 필수템인 커피, '마신다'라는 서술어 대신 '수혈한다'라고 할 정도로 언급하는 커피 또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데, 전형적인 '지출 줄이기'에 해당되는 키워드이다. 커피는 끊기 어렵지만 소비를 줄이기 위해 끊는다면 혹은 줄이기라도 할 수 있다면 무지출챌린지에 가장 크게 도움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커피 안 마시기를 넘어 대중교통 안 타기, 자전거를 이용하기 또한 존재한다.

'쿠폰', '포인트'에 해당하는 담론의 핵심은 말했듯이 '소비를 줄인다'가 아닌 '소비에 필요한 자원을 얻는다'에 있다. 걸을 때마다 1원으로

‘오마카세’ 언급 추이



* 블로그+커뮤니티+트위터+뉴스, 2020.06.01~2023.05.31

* 자료: 생활변화관측소

환금되는 포인트를 주는 앱을 꾸준히 사용한다든지 설문조사, 이벤트 같은 것에 참여해서 소소한 금전적 보상이나 쿠폰, 기프티콘을 받는 방법도 많이 활용된다고 한다. 이를 우리는 ‘애포크’라고 부르는데 요즘 젊은층에서 애포크가 유행이다. 그들이 번거롭지만 애포크를 하는 배경에는 소소하게 돈을 모으면서 얻는 만족감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젊은층이 무지출챌린지와 애포크 등을 하는 데는 ‘놀이’와 결합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행위들을 SNS에 인증을 하면서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연대를 하며 즐긴다.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퀘스트를 달성한 후 보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기에 무지출챌린지가 하나의 ‘밈(놀이문화)’처럼 번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비 양극화? 오마카세는 문화의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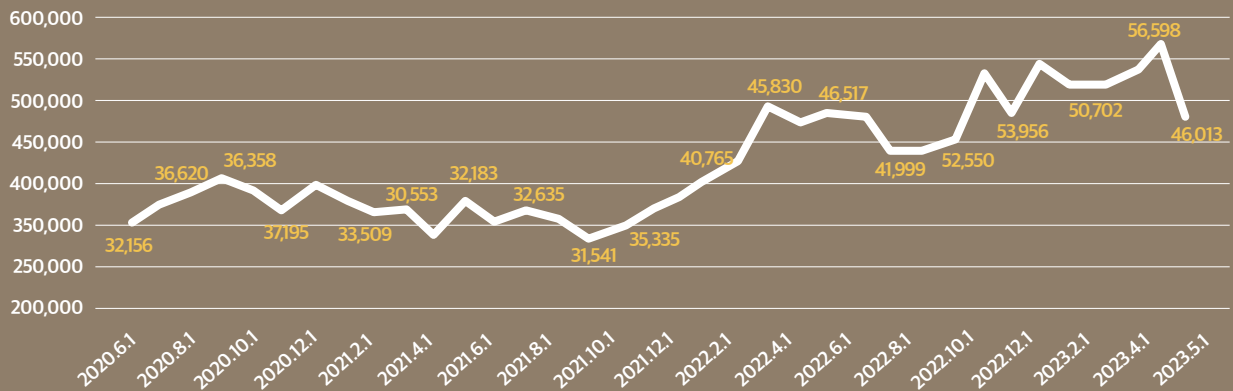
무지출챌린지와 함께 종종 언급되는 키워드로 오마카세가 있다. ‘소비 양극화’라는 맥락에 함께 언급되며 극단적인 절약을 실천하면서 한편으론 거침없이 큰 소비를 마다하지 않는 듯한 현상을 일컫는 것이다. 무지출챌린지가 절약이라는 한쪽의 극단을 대표한다면, 다른 극단적 상황엔 오마카세가 있다고 묘사된다. 한 끼에 적게는 2만 원 정도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한다는 오마카세. 사실 데이터로 보

면 ‘오마카세’는 ‘무지출 키워드’와는 굉장히 다른 경향을 보이는 키워드다.

무지출 키워드가 최근 크게 상승한 유행과 같은 키워드라면, 오마카세는 사실 3년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명백한 사회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 무지출챌린지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발생한 현상을 통해 시대와 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오마카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유행이 아닌 경향을 볼 수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이다.

무지출챌린지는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분위기와 함께 발화된 키워드라면, 오마카세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강화된, 와인과 페어링 문화로도 대변되는 수준 높아진 식문화 트렌드와 궤를 함께한다. 나아가 오마카세는 단순 식사 행위를 넘어서 종종 부모님의 환갑 선물, 뮤지컬, 콘서트 등의 다른 문화생활을 사이에 두고 비교되기도 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문화적 시도이기도 하다. 즉 단순 개인 혹은 특정 세대의 일상 속 점심 식사와 관련으로 보면 사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날의 문화적 경험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의 문화적 수용성 즉 개인이 문화생활에 허용하는 금액이 전시, 뮤지컬, 공연을 넘어, 식문화까지 그 수용성이 다양해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도 있다.

두 개의 중심에는 '효율'



* 블로그+커뮤니티+트위터+뉴스, 2020.06.01~2023.05.31
* 자료: 생활변화관측소

‘오마카세’와 ‘무지출챌린지’ 공통점은 ‘효율’

다시 말해 ‘무지출챌린지’와 ‘오마카세’는 기본적으로 다른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공통점으로 두 개의 중심에는 ‘효율’이 있다. ‘효율’은 데이터로도 꾸준히 상승하며 사람들의 소비에서 효율이 중요하게 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무지출챌린지와 오마카세라는 두 어울리지 않는 키워드가 공존하고 있는 양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효율’이 중요한 시대라는 관점에서 오마카세는 특별한 날이나 누군가를 위한 선물 속 효율로, 무지출챌린지는 일상 속 효율이라고 이해한다면 이 현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즉 젊은층의 소비에는 자신의 가치, 경험에 대한 만족도 등을 효율 지표로 삼아 절약할 때와 소비할 때를 구분한다. 하지만 이것을 젊은층의 전유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효율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의 가치이며 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더욱이 경제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기에 우리의 소비 패턴은 앞으로도 효율의 감각을 살리고자 할 것이다.

‘무지출챌린지’와 ‘오마카세’ 모두 낯선 현상일 수 있다. 개인이 살아온 시대의 경험치와 기준으로 새로운 현상을 보면 늘 공감하기 힘든 법이다. 하지만 현상은 늘 좋고 나쁨이 없는 중립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보다는 현상이 관찰되었을 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세상 읽기에 유리하다. 한편 이 현상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관계의 측면에도 발휘되고 있다. 형식적인 관계나 자신이 주도할 수 없는 관계를 거부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관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시대는 ‘효율’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정석한

동남아에서 살다가 홍콩에서 대학을 나왔다. 대세 트렌드를 누구보다 먼저 읽고 살짝 비껴가는 삶을 사는 데 재미를 느낀다. 살아 있는 빅데이터로 활동하며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열심히 살고, 각자의 값진 데이터를 기꺼이 제공해주는 친구들과 서로의 인생 데이터를 공유하며 사는 삶을 즐긴다.



Q&A

Talk-Talk

우대금리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특판 예적금 제대로 알아두기

시중에 특판 예적금 상품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면서 우대금리를 좇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에서도 분쟁의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가입을 부탁하고 있다.

글. 이창준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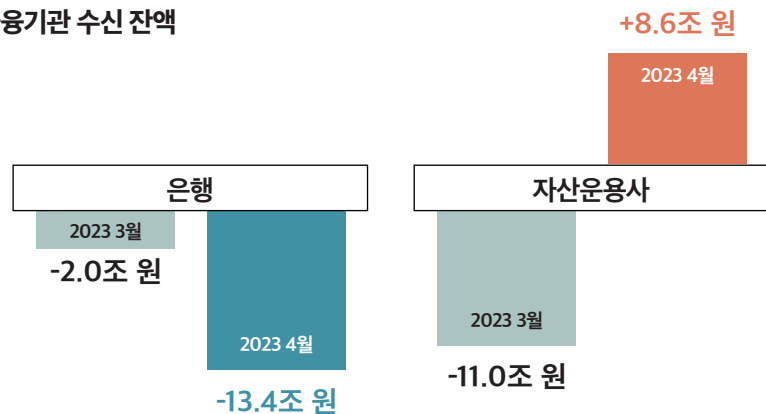


최근 경기 여건이 악화하면서 높은 금리가 보장되는 특판 예적금 상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최대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은행들은 ‘다자녀 예적금’부터 ‘프로야구 예적금’까지 테마별 특판 수신 상품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다만 일부 특판 예적금 상품의 경우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설정해 놓는 경우도 있어 이용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특판 수신 상품의 종류와 이들 상품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다.

Q. 현재 예적금 특판 상품이 특별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A _____ 2023년 4월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지난달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수신 잔액은 41조6,000억 원이나 급감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수신 잔액은 2,204조9,000억 원으로 지난 3월 말보다 대폭 감소했는데, 감소 폭은 전달 2조 원에서 13조4,0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자금 흐름을 보면 은행 수신은 감소 폭이 확대된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로 전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중 자금이 예금보다는 수익률 높은 단기 금융 상품들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더 높은 금리를 찾는 수신 고객의 이탈을 막고 신규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 수신 잔액



* 2023년 4월 금융시장 동향 * 자료: 한국은행

Q. 특판 예적금 상품은 어떤 상품인가요?

A _____ 특판 금융상품은 은행이 특별히 자금을 마련해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금융상품을 뜻합니다. 특판 예적금 상품의 최대 장점은 기존 상품에 비해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대금리 조건을 잘 충족하면 예적금만으로도 펀드나 주식처럼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 못지않은 투자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창준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으며, 경제와 금융 관련 전문 취재와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있다.

QA

Talk-Talk

Q. 예적금 금리가 어느 정도인가요?

A _____ 은행에 따라 다른데 3% 후반대부터 최고 10%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금융권으로 보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이 제1금융권보다는 다소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평균적으로 5~10%까지의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A저축은행에서 연간 걸음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최대 10%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제1금융권에서도 앞다퉈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3~7%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부 저축은행이 편의점과 손잡고 금리 6%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Q.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_____ 고금리 특판 예적금은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가입하거나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 시 해당 은행의 입출금 계좌를 미리 만들어야 하는 등 사전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가입 방법은 상품별로 해당 은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떤 특판 예적금 상품들이 있나요?

A _____ 은행별로 다양한 테마별 특판 예적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 관련 이슈로 다자녀 특판 상품 등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통합·확대되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상품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프로야구 특판' 상품도 판매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특판'이나 '외화 정기예금 특판' 등 여러 분야의 특판 상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Q. 우대금리 조건은 무엇인가요?

A _____ 아무 조건 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상품들도 있지만 상품들 대부분이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시 우대금리 충족 조건들을 자세히 보고 따져봐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QA Talk-Talk



Q. 그래도 다른 예적금보다 이율이 높은 게 아닌가요?

A —————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5대 시중은행은 총 23개 특판 예적금 상품을 선보여 9조2,836억 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만기가 도래한 고객이 실제로 받아 간 평균 금리는 최고 금리의 80.0%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우대금리를 충족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에 나온 일부 특판 예적금 상품들도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어 최고 금리가 높더라도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판 상품이 다른 예적금 상품에 비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이 특판 예적금 관련 분쟁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는 가입 시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최종 예상 금리를 시중금리와 비교해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길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은행이 특판 예적금 상품을 광고할 때 금리구조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하진 않는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그 확률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특판 예적금 상품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A ————— 특판 상품을 포함해 시중에 나와 있는 예적금 상품의 종류와 금리 수준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금융상품 한눈에'에 접속하면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등 약 140여 개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예적금과 대출 상품의 금리 및 거래 조건 등을 비교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의 경우 최신 정보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각 개별 은행을 통해 상품명과 거래 조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하세요!

우대금리 관련 민원 사례

#카드이용실적

우대금리

10%의 최고금리를 보고 특판 적금에 가입한 A씨는 가입 이전 6개월간 카드사용 실적이 있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함.

#온누리상품권

구매 우대금리

B씨는 매년 평균 100만 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을 구매 하여야 적용되는 우대금리 (2.4%) 조건을 가입 첫해만 100만 원 구매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

#친구초대

우대금리

C씨는 적금 상품의 기본금리가 1.5%로 지나치게 낮은 반면 친구초대 등 우대금리(5.5%) 충족 조건의 안내가 부족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함.

IRA 및 반도체지원법, 국내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IRA 및 반도체지원법의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석



김광석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알려진 이코노미스트다. 교수, 연구원, 작가, 칼럼니스트, 대중 강연자, 자문위원, 경제 평론가, 유튜버, 블로거 등 다양한 직업과 활동으로 삶을 채워나가고 있다.

미국 IRA와 반도체지원법 도입 배경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에 많은 속제가 주어졌다. 세계 최대 자원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했고, 이로 인해 원자재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지며 이른바 '공급망 병목현상'이 나타났다.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고충을 겪었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놓이게 되었다.

공급망 대란 및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미국은 특별한 조치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더욱이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강력한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하면서 경기침체에도 대응해야 하는 국면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과 반도체지원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거나 전기차 시장을 자국에 유리하게 이끄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또 다른 긴장감을 던져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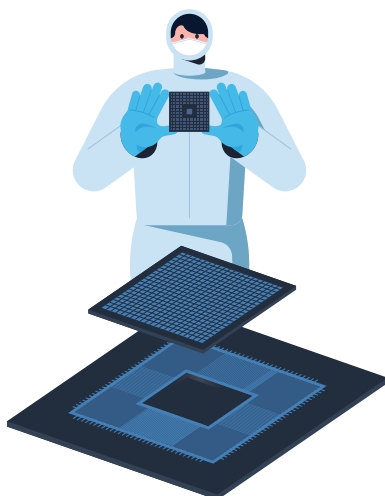
미국 IRA와 반도체지원법 내용

먼저 IRA는 해외 주요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고, 자국 기업들에 환경보조금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도록 조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사항은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해 에너지 자립화를 이루고, 동시에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아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장치로 해석된다.

'반도체지원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생태계 육성법안이다. 반도체와 과학산업에 2,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 생산 공정을 미국에 두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 법은 상당한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초과이익공유'라는 조항은 기업의 경영 및 재무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경영주권을 흔들고 사업 기밀 보안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반도체 시설 접근권'을 부여해야 하는 조항도 기술격차가 최우선인 기업에 기술 탈취를 야기하는 위협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 사내에는 '성과보다 보안'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을 만큼 보안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미국 국방 장비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 뒤에 기술 보안을 위협하는 채찍이 마련된 것이나 다름없다.

반도체지원법이 주는 위협은 무엇보다 '중국투자 확대 제한'이라는 조건에 있다. 초과이익 공유와 반도체 시설 접근권은 어쩌면 조심하면 될 일이지만 미래의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금융경제위기

함을 내포하는 이 조항은 사실상 독 그 자체다.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 내 생산능력을 늘리지 못한다. 올해 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40%, 낸드플래시의 20%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지속적인 투자와 업그레이드, 개발,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중국 시장을 놓칠 것이 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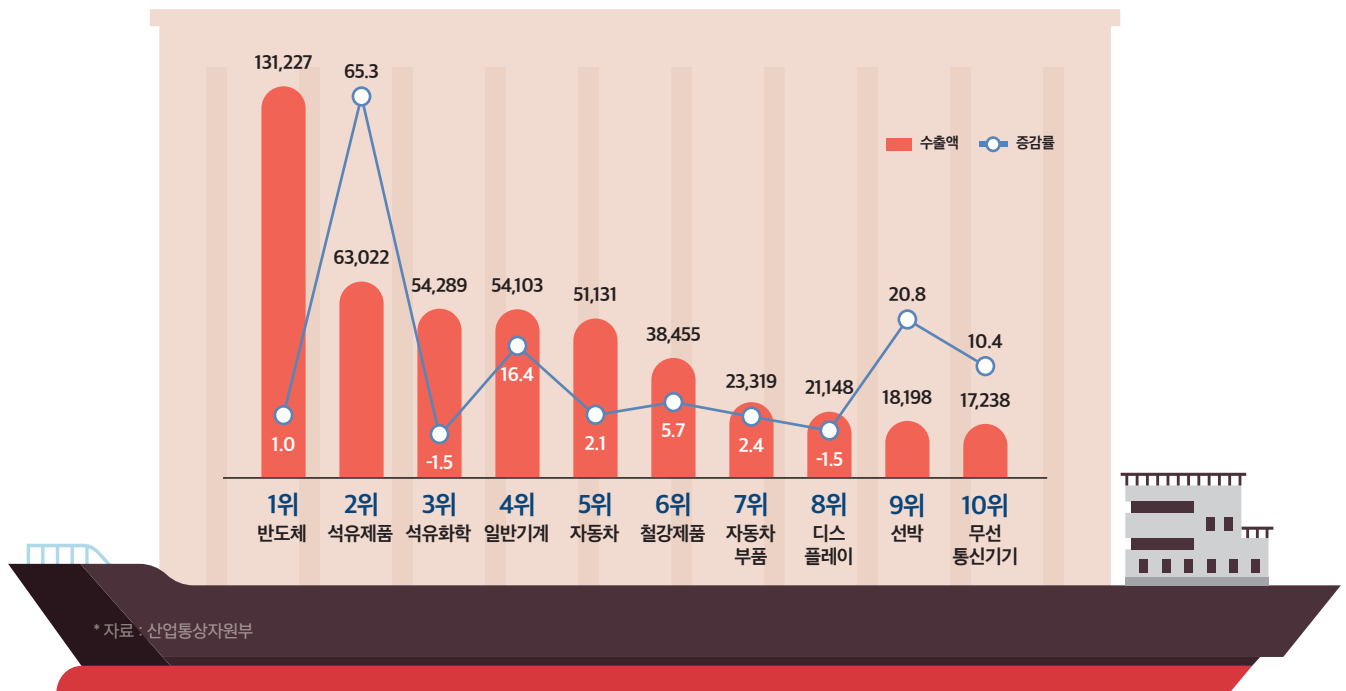
두 법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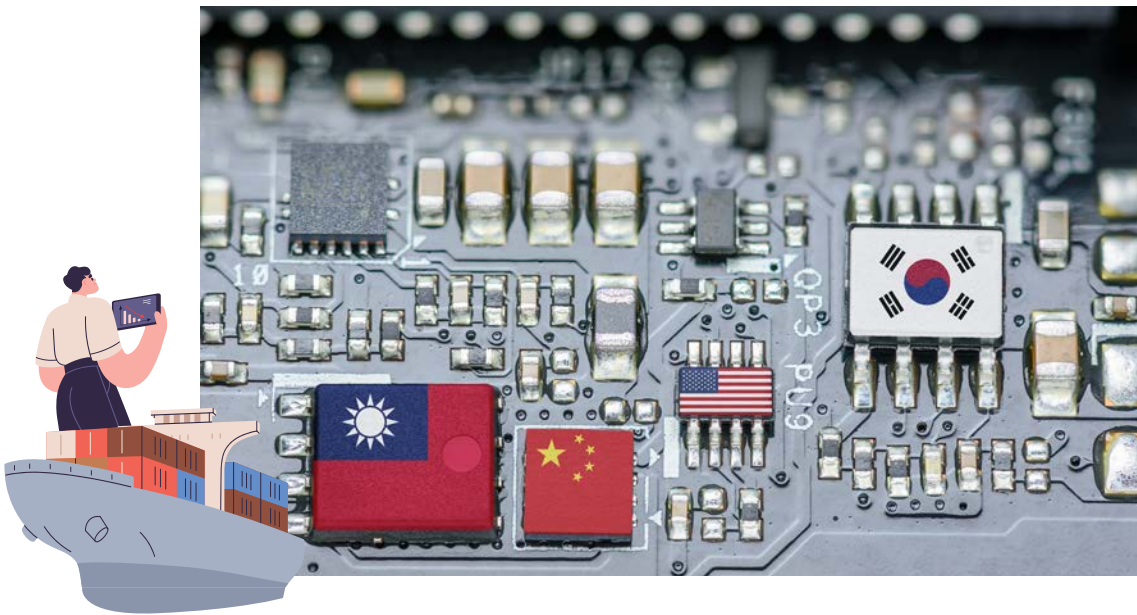
IRA와 반도체지원법의 후폭풍이 우려된다.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는 곧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의 수출길이 막힐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IRA로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세액공제 차별을 두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업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고, 미국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생산을 제한한 '반도체지원법' 또한 엄청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 가뜰이나 경기적인 요인으로 반도체 산업이 부진한데 미·중 갈등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은 업계와 정부에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이다. 반도체가 가지는 경제적 의미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반도체 수출은 한국의 총수출에서 약 20%를 차지한다. 2022년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고, 중국의 코로나19 섯다운 등이 영향을 미쳐 18.9%로 떨어졌지만 자동차가 7.9%, 무선통신기기(스마트폰 포함)가 2.5%, 가전제품이 1.2%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비중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더욱이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과 같은 나머지 주력 수출품목에

2022 주요 수출품목 규모 및 증감률

(단위 : 백만 달러, %)





도 반도체를 부품으로 사용해 제조하기에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주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압력으로 한국의 대외거래는 이미 부진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3년 4월 기준 지난해 3월부터 14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외환위기가 닥치기 전에도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29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진행된 바 있다. 주력 수출품목이 하나같이 부진하니 흑자로의 전환이 매우 힘들다. 무역적자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가 더 큰 문제다. 한국경제 역사상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2022년 8월과 11월, 2023년 1월과 2월 근래 4번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IRA와 반도체지원법은 대외거래 회복을 지연시킬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민관합이 하나가 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엄중한 시점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언컨대 기술이다. 첫째도 둘째도 기술력이다. 자원이 없는 우리가 글로벌 주력 산업 전쟁 속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적 격차를 벌려 놓아야 한다. 정부가 계획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활용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 우주항공 등에 활용될 미래형 첨단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반도체 밸류체인인 전후방 산업으로의 진출도 요구된다. 반도체 설계, 반도체 소재 및 장비 등과 같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들을 용인 클러스터로 유치하고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사이클 관리도 중요하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반도체 수급조절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2020~2021년에는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대란을 겪었고, 2022~2023년에는 과잉공급에 따른 역풍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더 나아가 탈세계화 속에서 국내에 외교정책도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외화 송금 거래 등 신고는 필수!



2022년 중 개인이나 기업인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 송금 등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총 702건을
검사하여 632건에 대해 조치(과태료, 경고)하고,
70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외화 송금 등 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정리. 편집실

Check Point 해외직접투자 시 유의사항

Case 태국 소재 현지법인에 3만 달러 송금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시 불법!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직접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미처 하지 못했다면 누적 투자금액이 50만 불 이내에서 사후에 보고해도 된다. 최초 신고 이후에도 현지 법인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의 방식이 바뀌었다면 이 또한 보고 의무가 있다. 또한 신고사항에 대한 송금, 증권취득, 연간사업실적 등을 사후 보고 해야 한다.

Check Point 해외부동산 거래 유의사항

Case 거주자인 B는 자녀의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미국 소재 주택 구매

↓
은행에 취득 미신고 시 불법!

해외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은행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구매하거나 부동산 투자 등의 목적으로 구매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다.

Check Point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거래 유의사항

Case 국내 영리법인 C는 태국인 비거주자로부터 2천만 불을 차입

↓
은행에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하여 미신고 시 불법!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할 때 거래 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수령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를 금전대차 신고라고 한다. 금전대차 신고할 때는 거래사유서,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 대주 및 차주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Check Point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매매 시 유의사항

Case 국내 기업 D는 비거주자로부터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율 0.5%)를 취득

↓
은행에 이를 밝히지 않고 취득 대금을 송금하여
증권취득 미신고 시 불법!

거주자가 송금을 통해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은행에 증권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외화증권을 양수받을 경우 신고 의무는 없으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외화증권을 취득했을 때는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한다.

Check Point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여 시 유의사항

Case 거주자인 E는 비거주자인 캐나다 국적의 자녀 F에게
국내 소재 부동산 증여

↓
E는 증여 신고, F는 취득 미신고 시 불법!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 신고해야 한다.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한국은행에 취득신고 의무가 있다.



Part 3

FSS LIVE

38

토박이의 여행 안내서

신들의 섬이자
여행객들의 낙원, 발리

52

FSS 뉴스

44

우리는 호적메이트

오늘 한 잔 하실까요?
모녀의 막걸리 원데이 클래스

54

뻘하지 않은 퀴즈

48

나를 가꾸는 시간

식물과 함께한
어버이날 선물 2탄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에밀쿠에 Emile Coue, 약사

FSS Live

토박이의 여행 안내서

신들의 섬이자
여행객들의 낙원,

발리

Bali, the island
of the gods

에메랄드빛 바다와 럭셔리한 리조트.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 액티비티,
천혜의 자연이 숨 쉬는 곳. 신들의 섬으로
불리는 발리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다.
코로나19가 종식을 고하고 있는 지금,
발리로 떠나보자. 올여름 여행지로.

글, 사진. 쿤(여행작가)

발리하면 서핑, 서핑하면 쿠타

국내에서 서핑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발리는 신흥여행지에서 서핑의 여행지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여름 서핑을 즐기러 서퍼들이 너도나도 발리로 향한다. 그중 우리나라 여름에 발리는 서핑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물론 열대 우림으로 비가 자주 오지만 4월에서 9월까지 건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진정한 서퍼라면 비가 무슨 대수겠느냐마는. 그중에서도 건기에 남동풍이 불어 파도가 부서지는 것을 막아주기에 발리 서쪽 해안인 '쿠타', '스미낙' 등의 해변가가 좋은데, 서핑 말고도 관광도 함께하고 싶다면 쿠타를 추천한다. 쿠타 비치는 높은 파도와 허리 깊이의 물로 전문 서퍼에게 인기가 있는 장소다. 물론 초보 서퍼



발리는 신흥여행지에서 서핑의 여행지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중 쿠타해변이 서퍼들에게 인기가.

에게도 적당한 곳으로 서핑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많다. 오디세이, 립 컬 서프 스쿨, 발리 서퍼 걸스 서프 스쿨 등의 유명한 서핑 학교가 근처에 있다. 대략 이론교육 2시간, 체험 1시간으로 약 3만 원 돈이면 강습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쿠타에는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과 함께 또 하나의 볼거리가 바로 '해변 축구'다. 현지인들과 해변 축구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대개 4시쯤 하드 록 호텔과 디스커버리 쇼핑몰 사이에 골대가 세워진다.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쿠타는 해변 말고도 도심이 공존해 발리의 최고 관광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발리 사람들은 섬에서 가장 번잡한 중심지 중 하나인 쿠타를 '다운타운'이라고 부른다. 그중에서 쿠타 스퀘어(Kuta Square)란 쇼핑몰은 저렴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각종 종교 기념물과 발리 전통 건축물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발리폭격기념비(Bali Bombing Memorial)는 관광객들이 많은 주점에



서 테러가 발생했던 아픈 기억을 되새기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으며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 외에도 쿠타 비치 근처 뉴꾸타 골프장은 발리에서 가장 경치가 좋지만 어려운 18홀 챔피언십 코스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발리의 자존심은 쿠타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Tip

- 쿠타는 국제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 있음.
- 쿠타 시내 투어 시 택시를 이용하길 권함.
- 자전거나 스쿠터는 교통사고가 잦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음.



- 뉴 쿠타 골프장은 경치가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발리 사파리 테마파크로 2007년에 문을 열었는데,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가족여행지로 제격이다.



발리의 숲속으로 우뚝

발리의 푸른 바다를 봤다면 숲속 그린 존으로 가보자. 바로 발리의 우뚝으로 향하면 된다. 이곳에는 고대 사원과 아주 오래된 웅장한 왕궁, 그리고 우뚝의 랜드마크로 유명한 떠그농안 폭포(Tegenungan Waterfall), 폭포, 우뚝 원숭이 숲과 발리 사파리, 사진 촬영 명소인 뜨갈랄랑(Tegallalang) 계단식 논까지. 볼거리, 사진을 찍을 만한 명소 등이 넘쳐난다. 그중 요즘 뜨는 곳이 바로 발리 사파리다. 코모도 드래곤, 오랑우탄, 발리 찌르레기 등 100종 이상의 야생동물을 볼 수 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발리 사파리 테마파크로 2007년에 문을 열었는데,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가족 여행지로 제격이다. 숙박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데이투어부터 한밤중에 케이지 안에서 사자, 호랑이와 으스스한 만남을 갖는 '나이트 사파리' 투어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특히 아침 식사 시간과 먹이 주는 시간에 코끼리, 오랑우탄, 앵무새 등 동물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곳과 함께 우붓 원숭이 숲도 꼭 가봐야 하는 곳이다. 우붓 중심가 외곽에 위치한 우붓 원숭이 숲에는 700여 마리의 긴꼬리 마카크 원숭이가 살고 있다. 이곳은 자연 보호구역으로 원숭이가 사람보다 먼저인 곳인데, 가까이에서 원숭이를 만날 수 있어 발리 사파리가 생기기 이전부터 유명한 곳이다. 이곳까지 구경했다면 요즘 뜨는 핫플레이스도 놓치면 안 된다. 바로 뜨갈랄랑 계단식 논과 그곳에 위치한 발리 스윙(로터스 우붓 스윙)이 그곳이다. 인스타그램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힐 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이미 해외여행자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입소문이 난 곳이다. 인생샷을

뜨갈랄랑 계단식 논은 SNS상에서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남기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할 건 우아한 의상일터. 여기에 뿌라 구농 레바(Pura Gunung Lebah) 사원도 우붓에 왔으면 필수 코스다. 잘란 라야 우붓 주 도로의 서쪽 끝에 위치한 사원은 고대 발리어로 '산 계곡 사원'이라는 의미다. 이곳 또한 인생샷을 많이 남기는 곳 중 하나인데 바투르의 여신을 모시는 곳이다.

● **뿌라 구농 레바 사원은 바투르 여신을 모시는 곳으로 요즘 인증샷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Tip

+ 원숭이 숲

- 규모가 꽤 큰 편이고 길이 좋지만 미끄럽지 않도록 편한 신발을 착용.
-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금지.
- 선글라스, 액세서리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음.

운영 시간 09:00~18:00

입장료 성인 약 8,000원

어린이 약 6,000원(한국 기준)



Tip

+ 발리 스윙

시설마다 줄이 길어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방문을 권한다.

입장료 35달러 사진 촬영 서비스 10달러

드레스 대여 약 2만 원(한국 기준)

현지인이 추천 발리, 여기도 있어요!

BEST ①



BEST ①

자유를 만끽하라, 스미낙 비치클럽

발리의 바다를 마주하고 음악과 맥주 한 잔이 있는 곳, 바로 해변클럽이다. 이국적인 비치 클럽에서 밤새도록 마음껏 파티를 즐겨도 좋고,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부담스럽다면 스미낙의 멋진 재즈 클럽도 좋다. 스미낙 3대 비치클럽으로 꼽히는 포테이토 헤드 비치클럽(Potato Head Beach Club), 쿠데타(KUDETA), 코쿰(Cocoon)은 전 세계 클러버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하다. 그중 포테이토 헤드 비치클럽은 국내 방송 <나 혼자 산다>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곳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

포테이토 헤드

운영 시간 09:00~24:00

요금 1인당 바우처 구입

(약 1만5천 원, 한국기준)



BEST ②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세쿰폴 폭포

무성한 열대 숲속에 자리 잡은 세쿰폴(Sekumpul) 폭포는 초록빛 절벽으로 둘러싸인 7개의 폭포를 가리킨다. 폭포의 개수도 7개지만, 폭포 위로 큰 무지개가 피어오르기 때문에 마법 무지개 폭포라는 애칭이 붙어 있기도 하다. 시원한 계곡물을 맞으며 한적한 계곡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경험을 해도 좋다.

+

여행사 마다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다.



BEST ③

일몰에 펼쳐지는 댄스의 세계 깨짝 댄스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에 등장한 배경으로 유명한 울루와뚜 절벽. 일몰이 시작되면 석양을 배경으로 탁트인 절벽 위에서 펼쳐지는 몽환적인 한바탕 축제인 깨짝 댄스가 펼쳐진다. 이 댄스를 보지 않고 발리를 다녀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발리를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수십 명의 남자 무용수가 중앙을 향해 둥글게 앉아 손을 들고 깨짝 깨짝 소리를 내며 공연을 한다. 인도네시아의 전통 춤으로 신들린 댄서가 불 위를 맨발로 올라가서 추는 파이어댄스가 절정으로 관객들은 절로 환호성을 지르게 된다.

+

깨짝 댄스

운영 시간 17:30~19:00 (매주 금, 토, 일)

공연 시간 18:00~19:00

17시 30분 이전에 도착해야 가장 좋은 각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현지인이 추천 발리 숙소, 여기 어때요! 오션뷰 VS 숲뷰

Hotel

시원한 오션뷰를 자랑하는 아야나 리조트 앤 스파

쿠타 지역에 있는 아야나 리조트 앤드 스파는 해안 절벽의 오션뷰가 압권인 리조트다. 오션풀을 포함해 5개의 수영장이 있어 수영장이 인스타그램 등에 종종 올라오는데, 메인풀과 오션 비치풀은 투숙객들에게 필수 포토존이다. 또 키즈풀도 있어서 가족이 함께 머물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이 외에도 18홀의 골프장, 키즈 클럽, 스파숍 등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이 리조트가 더 뜨고 있는 이유는 록바 때문이다. 록바는 말 그대로 바위(Rock) 위에 지어져서 록바로 불리는데 바다 위 14미터 높이에 있다. 2009년 7월에 문을 연 후 인기 명소가 되고 있다. 일반인들도 갈 수 있지만 아야나 리조트 앤드 스파 투숙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ayana.com/bali



Hotel

통나무집에서 하룻밤 바이쿤타

우붓의 숲속을 맛보기로만 즐기기가 아쉽다면 호텔 대신, 우붓의 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오두막숙소를 정해보는 것도 좋다. 바이쿤타 우붓은 우붓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떨어진 에어비엔비 숙소인데, 1박에 20만 원대에 달하며 성수기에는 30만 원대까지도 오른다. 이곳에 매력은 150년 전통의 목조 오두막 숙소로 숙소 너머로 강, 계곡, 논, 산 등 정글뷰가 시원하게 펼쳐지며 하이라이트는 숙소에 있는 그물 침대와 해먹으로 문을 열고 뷰를 감상하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물론 모기페의 습격은 엄두에 두어야 한다. 에어비엔비에서 바이쿤타를 검색하면 다양한 오두막 숙소가 나온다.

에어비엔비
바이쿤타



오늘 한 잔
하실까요?

**모녀의
막걸리 원데이 클래스**



성인이 된 딸과 함께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술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평소 어머니와 술 한잔을 즐긴다는 정지현 금융사기대응단 전문역이
어머니 김길선 여사를 위해 준비했다. 손수 만든 막걸리 한 잔을 위해서.

글. 김효신 사진. 한상훈



정지현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전문역 & 어머니 김길선 여사

모녀의 데이트, 막걸리 원데이클래스

평소 지인을 초대해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하고, 가족끼리 맛있
는 음식을 만들어 술 한잔을 기울
인다는 정지현 전문역과 어머니는
오늘 막걸리 원데이클래스에 은근
한 기대가 있었다고 한다.

“예전부터 어머니와 저의 공통관
심사인 전통주를 배워보는 거였어
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막걸리 체
험이라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얼른 신청했는데, 선정됐더라고요.”

정지현 전문역의 어머니는 평소 막걸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천안에서 한달음에 기꺼이 응해주셨다고.

“옛날에 외할머니께서 외할아버지를 위해 집에서 막걸리를 자주
만드셨는데, 그때 어머니는 외할머니에게서 막걸리 만드는 법을 배
우지 못해 서운하셨다고 해요. 그 뒤로 외할머니께서 막걸리를 만
들던 모습을 어렵פות이 기억해내 막걸리 만들기를 시도한 적이 있다
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실패를 하기도 하고 맛도 들쭉날쭉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그 어떤 체험자보다 적극적이었다. 날짜도 먼저 제안
해줄 만큼 적극적인 두 사람의 막걸리만들기 수업이 시작 전부터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음식 솜씨가 좋다는 어머니가 만
드는 막걸리 맛은 어떨지 궁금하
기까지 하다.

막걸리 수제자, 열혈 수강생

하지만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선 오늘
막걸리 만들기를 알려준 강사의

인사로 수업이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오늘 막걸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막걸리에도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맛도 조금씩 달라요. 탁주는 크게 동동주와 막
걸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발효된 술을 청주로 거르지 않고 물도 첨
가하지 않은 게 동동주이고, 살균하지 않은 막걸리를 생막걸리, 살
균 과정을 통해 효모를 비롯한 미생물의 활동을 멈추게 해서 만든
게 살균막걸리입니다.”

이론에 대해 알려주는 강사의 말에 두 사람은 열혈 수강생이 되어
고개를 끄덕인다. 이론 수업이 끝난 후 강사가 미리 담근 막걸리 시



음을 권해본다. 두 사람은 막걸리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 맛에 두 눈이 반짝인다. 이제 본격적으로 막걸리를 만들 차례다. 찹쌀, 멥쌀, 밀 모두를 사용해 만드는데 그중 찹쌀과 멥쌀을 이용해 5:5로 섞는다. 쌀을 흐르는 물에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씻은 다음 물기를 뺀 쌀을 30분 정도 찐다. 이게 고두밥이다. 이 과정을 수업 시간상 강사가 준비해 두었다. 본격적인 체험은 누룩을 물에 불리는 작업부터 시작됐다. 누룩은 술의 발효제로 찹쌀, 멥쌀, 보리 등으로 만든 것인 것, 이를 물에 불린다. 이 과정을 두 사람은 찬찬히 따라 했는데 역시 주부 100단의 어머니의 손놀림이 인상적이었다. 그다음 고두밥과 누룩을 같이 섞을 차례. 미리 고두밥을 준비한 강사는 “누룩 이랑 고두밥을 잘 섞어줄 거예요. 고두밥은 약 25도 정도 따뜻한 온기가 있으면 되고 누룩이 없을 땐 엇기름을 사용해서 막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누룩이랑 고두밥을 섞어볼까요?” 강사의 말에 따라 누룩과 고두밥을 섞기 시작했다. 두 개를 섞는 일도 사실상 만만치 않지만 역시 어머니는 수월하게 하는 반면, 정지

현 전문역은 어딘지 모르게 서툰 모습이다. 하지만 열혈 수강생답게 두 사람 모두 누룩과 밥을 골고루 잘 섞어냈다. 이제 막걸리 통에 담아주면 오늘의 수업은 끝이다. 두 사람이 자신들이 만든 것을 통에 담기 시작할 때 강사는 “이렇게 담은 후 5일 정도의 발효를 거치면 막걸리가 된답니다”라고 하자 두 사람은 군침을 꿀꺽 삼킨다. 이날 수업을 들은 정지현 전문역은 생각보다 막걸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한다.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은 결코 간단한게 아니네요. 특히 수제 막걸리의 경우 손도 많이 갈 뿐더러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완성되기까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덧술(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1차 밑술에 2차로 겹쳐 담가 덧넣은 술말이나 술밥)을 더 할 때 마다 도수도 높아지고, 맛도 깊어진다고 하니 정성이 빛은 술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굉장히 가게에서 쉽게 구매를 하는데, 그 막걸리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다니, 놀랍네요.”

남다른 술 사랑으로 빛은 가족애

오늘 체험은 역시 막걸리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어머니가 더 수월한 느낌이다. 정지현 전문역도 “특별히 어려워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 어머니가 경험이 있으셔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무언가에 어머니가 집중하는 모습을 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라고 하자 어머니는 “오늘 체험을 통해 그동안 만들었던 막걸리의 실패했던 원인에 답을 얻은 것 같아요”라고 흐뭇해하셨다. 오늘 담금 막걸리를 지인을 초대해 술 한잔할 계획이라는 두 사람은 평소 주종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어머니와 저는 주종은 대체로 가리지 않고 마시는 편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전을 부쳐서 막걸리와 함께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아버지가 담금주 만드는 걸 좋아하세요. 직접 아버지께서 담금주를 만드시고 즐기시는데 우리 가족 모두 술을 잘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잘 마시는 편이기도 하지만 즐긴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지현 전문역의 말처럼 가족이 함께 두런두런 앉아 술 한잔하면서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을까. 비록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마도 조만간 오늘 만든 막걸리로 다시 한 번 가족애를 빛내지 않을까 싶다.

우리 김길선 여사님은요!



정지현 전문역

올해 67세이신데, 연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쾌하신 편이세요. 지인들을 초대해 음식 대접을 해주는 걸 참 좋아하시고요. 항상 어려운 거, 귀찮은 거는 딸에게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어머니세요. 그래서 오늘 체험도 덕분에 수월하게 했고요. 스무살 이후로 떨어져 살다 보니, 항상 많이 그리고 보고 싶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잘할게라는 말보다 이번 주에 얼굴 보러 갈게라는 말을 자주 할게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옆에 있어 주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만큼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챙길게요.

우리 딸, 정지현은요!



김길선 여사

큰 딸인 지현이는 잘 자라서 든든하게 엄마 옆에 있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가끔씩 함께했던 국내외 여행, 계곡에서의 바비큐, 밤늦은 산책 등 엄마와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딸입니다. 앞으로도 딸과 함께할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며 건강 관리도 잘 해서 오래도록 딸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FSS news

5/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 업무협약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간담회 참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 2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신한은행·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피해자들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에 일조하기를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자문과 심리상담 등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후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영업점 직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5/8

금감원장, 금융권 공동개최 해외IR 참석 및 동남아 3개국 금융감독기구 최고위급 예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 금융시장 국제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5월 8일부터 12일까지 동남아 주요 3개국(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을 방문했다. 이는 금감원·금융권이 싱가포르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해외투자설명회(IR)에 참석하여 금융사들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남아 3개국 금융감독기구 수장 등 최고위급을 예방하여 글로벌 금융감독 현안 및 양 기관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 11일, 인도네시아에서 금융사들이 주최하는 'K-Finance Week in Indonesia 2023' 행사 및 5월 12일에 열린 '금융회사 현지 법인장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화 노력을 격려하고, 현지 영업·감독 관련 애로사항 및 지원요청 사항을 경청했다.



5/23

4개 기관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 천명

5월 23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4개의 기관장과 함께 김우진 서울대 교수, 김준석 자본연 실장,

성희활 인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1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XBRL본부와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 개최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XBRL본부와 공동으로

6월 1일 서울 63빌딩에서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제 XBRL협회(XBRL International), 학계(홍익대 윤재원 교수), 금융감독원에서 해외 XBRL 선진 사례, XBRL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 전략 등을 발표했으며, 공시·회계 유관기관 및 데이터 전문 기업 등과 함께 XBRL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이번 국제 XBRL 콘퍼런스를 통해 제기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XBRL 재무공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6/12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금감원과 소방청 간 업무협약 체결

6월 12일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과 소방청 남화영 청장은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금융회사의 전산센터 화재예방 및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과 3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전산센터 맞춤형 소방대책을 마련하고, 전산센터 위치정보를 소방청과 공유, ▲금감원과 소방청이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와 소방서 간 공동 소방훈련을 활성화, ▲전산센터 직원 대상으로 소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번 협약이 금융권의 전산센터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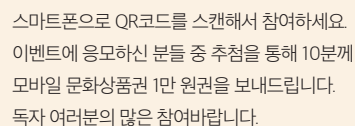
이번호 문제

빈칸에 정답을 넣어주세요.

파손된 지폐의 남은 면적이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능하다.

빈칸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힌트 20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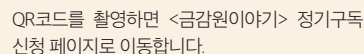
지난호 정답

Q2. 금리인하요구권

퀴즈 당첨자



- 이번호 이벤트 마감 : 2023년 7월 20일까지
- 지난호 퀴즈 당첨자 선물 발송 : 7월 31일경
- 문화상품권 1만 원 10명



SOS! 불법사금융 피해, ☎1332(→3번)로 적극 신고!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기간(5.26일~10.31일)' 동안 불법사금융 특별 신고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 및 차단, 그리고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불법사금융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보신 소비자께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해외여행 시 카드 도난 분실, 위변조 등으로 인한 피해 주의보!

주의사항 숙지 후 해외여행 중 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하고, 즐거운 해외여행 하세요!

팬데믹이 종식되고 해외여행을 가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해외여행을 할 때 카드 도난이나 복제로 인한 부정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주세요!

첫째, 출국 전에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카드 사용 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여행 중에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세요! 출국 전에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카드 뒷면에 서명해야 하며,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넷째, 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직접 확인하세요! 타인에게 결제를 맡길 경우 카드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